"Katchi Kapshida"

"Let's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May 2001

주한 미군 소식(2001년 5월호) United States Forces Korea News

Cadets from Korean Military Academy Kim, Ji Yoen (left) and Hwang,Yuen Young (right) shake hands with US Army Capt. Maria Burger, G3, EUSA before the symposium at the 8th Army headquarters in Yongsan. - story on page 13 -

용산 미 8군 본사에서 한미 여군 사관생도 선.후배 모임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한국군 김지연 사관생도 (왼쪽)와 황윤영 생도 (오른쪽) 가 미 8군 작전처에 근무하고 있는 마리아 버거 대위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 관련기사 13 면 -

Inside 내 용

Greetings to Our Friends	인사말
Focus on Friendship	진정한 우정이란
Revised SOFA: A Critical Step toward Lasting Alliance	개정된 SOFA; 항구적인 동맹관계를 위한 중요한 진전
Revised SOFA; An Overview	개정된 주둔군 지위협정: 개관
A Historical Perspective	역사적 관점 (개정 SOFA)
Planting Trees, Prosperity and Friendship for ROK-US	식목은 양국의 번영과 우정의 징표
Educators' Round Table - Building Understanding	한국 학계와의 첫 만남과 이해증진
New and Former Cadets Share Common Challenges	한국 여생도들, 미 여군장교들과 진지한 토의
Korea - Unique Opportunity and Hardship	한국근무는 힘들지만 유익한 기회를 제공
Military Service in Korea - A Family Tradition	3대째 한국에 근무한 한 미군가족의 전통
Reunion of Korean Woman and US Rescue Team	한국인 산모와 미군 구조단 뜻깊은 재회
Exploring Korean Culture through Beauty of Hanbok	한복의 아름다움과 한국문화 체험
A Reason US Vet Visits Korea	뜻 깊은 미국 재향군인 용사의 한국방문

Greetings to Our Friends

General Thomas A. Schwartz
Commander in Chief, UNC/CFC/USFK

Greetings to our good friends and neighbors of US Forces Korea. With the first edition of "Katchi Kapsida," we became convinced that this friendship newsletter will play a key role as a bridge and messenger between our two allies.

In addition, we are pleased with the very positive feedback and supportive responses from our readers to this new initiative to promote understanding and friendship. We truly look forward to strengthening our friendship with you in the days ahead.

Let me begin by updating you on two significant milestones that our two Nations have achieved as good friends.

First, we have together signed a revised Status of Forces Agreement or SOFA. The hard work and excellent dialogue between our governments proved absolutely successful in the end.

The revised SOFA, more than anything else, addresses the legal rights of our service members and their families while serving in Korea.

At the same time, the SOFA acknowledges and respects the Korean legal system for its fairness, justice and equity – an essential part of a free and democratic society.

Next, we have made tremendous strides in completing the details for the Land Partnership Plan(LPP). This plan is extremely crucial to our future. In essence, the LPP consolidates our installations to fewer sites, while enabling us to meet our defense obligations.

Needless to say, this is what can be accomplished through friendship, trust, mutual respect and transparency. We truly value your opinions and interest in making our ROK-US alliance stronger.

Finally, let me take this opportunity to proudly welcome Kim, Dong Shin as your new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He is a remarkable man who will further strengthen our friendship and our powerful ROK-US Alliance.

Thank you.

인사말

대장 토마스 에이 슈월츠
유엔사/한미연합사/주한미군사 사령관

주한미군의 좋은 친구들이자 이웃인 독자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주한미군 소식지인 "같이 갑시다"를 창간한 후, 우리는 이 한미 친선소식지가 한미 동맹국의 교량과 메신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해증진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 발간된 소식지에 대해 독자들이 보내준 매우 긍정적인 반응과 지원 노력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양국의 친선관계가 앞으로도 더욱 증진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먼저 그동안 새로운 변화 중 한미 양국이 좋은 친구로서 이루어낸 두 가지 획기적인 사건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한미 양국은 주둔군 지위 협정(SOFA)의 개정에 합의하였습니다. 양국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과 훌륭한 대화를 통해 매우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주한미군 요원들과 그 가족들의 법적인 권리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협정은 대한민국 법 제도의 공정성, 정당성 및 평등성등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 들은 자유 민주사회의 주요한 본질적 요소인 것 입니다.

두번째, 우리는 토지 공동 조정 계획의 세부사항을 완성시키는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의 앞날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토지 공동 조정 계획은 주한미군 기존 부대 시설물을 통폐합하여 기지의 수를 줄이면서 우리의 방위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물론, 이 계획은 양국의 우정, 신뢰, 상호 존중과 투명성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견해와 관심들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지를 통해 대한민국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신 김동신 장관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장관님은 한국과 미국의 우정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실 훌륭한 분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Focus on Friendship

Mr. Wang Sang Eun
President, Korean American Frienship Association

All of us at KAFA applaud the publication of the "Katchi Kapshida" newsletter by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The "Friendship" theme of "Katchi Kapshida" is most appropriate for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harmonious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past and present, and also in the future. Our traditional friendship has greatly contributed to bilateral benefits even while dramatic changes are occurring on the Korean peninsula.

Developing true friendships are not easy and it takes a long time to build trust. In particular, our friendship has been tested and strengthened on the battlefield against an enemy aggressor. Such friendships should be treasured and protected by all Koreans and Americans. It should not be easily broken or forgotten.

In 1974, the Korean American Friendship Association (KAFA) spearheaded a civic effort to convey appreciation to American forces personnel for their effective role in deterring aggression from the north. We are pleased that many, many thousands of junior enlisted personnel serving on unaccompanied tours far from their loved ones in the United States enjoyed the home visits, cultural tours, concerts and other special recognition programs sponsored by KAFA. These programs are made possible by the generous donations by hundreds of Korean corporate members and private citizens.

As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changes, the ties between nations and her peoples face new situations which strains relationships even among long-time friends. We are very pleased to learn about recent new initiatives by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to promote and enhance understanding and friendship between our two nations. We at KAFA pledge to continue our efforts to strengthen the strong bonds of Korean-American friendship. We also hope that fellow Koreans,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will continue their efforts towards the same common goal.

진정한 우정이란

왕 상 은
한미 친선협회 회장

한미 친선협회 모든 회원들은 한미 친선 소식지인 "같이 갑시다"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 "한미 친선"이라는 근본 취지를 다룸으로써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조화로운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우리의 전통적인 한미 친선 관계는 한반도내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양국의 상호 이익에 커다란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진정한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며 더욱이 상호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한미양국의 우호관계는 침략자에 대한 전쟁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모든 한국인과 미국인들은 이러한 우정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간직되어야 하며, 또한 그것은 쉽게 깨어지거나 잊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1974년에 설립된 한미 친선협회는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기울인 주한 미군 장병들의 역할과 그 간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기구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남아 있는 가족, 친지와 멀리 떨어져 홀로 한국에 근무하며 지내는 수 많은 주한미군 장병들이 한미 친선협회가 후원하는 가정방문 프로그램, 한국문화 체험 관광, 각종 음악회 및 기타 특별한 장병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행사들에 참석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우리는 이러한 모든 활동과 그 결과로 한미 친선 증진이라는 소득을 얻은 것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수 많은 한국 기업체 관계자들과 개인 사업가들의 뜻있는 후원으로 추진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가 변화의 물결 과정에서 각 국가들과 그들 국민들 사이의 우호관계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오랜 우방국들간에서 조차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주한미군사가 한미양국의 이해와 친선을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도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고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한미 친선협회는 한미 우호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국민들이 개인이나 또는 단체 모두가 양국 공동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Revised SOFA: A Critical Step toward Lasting Alliance

Kim Yu Nam, Ph D.
Prof. Dankook University/ Former President, KPSA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is an executive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ch defines the provisions of the legal position of the U.S. military forces deployed in Korea. It describes the situations in which members of the American forces are subject to Korean law or to the authority of Korean officials. The Korean SOFA is a civilian affairs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which delineates legal matters affecting the relations between USFK and the Korean civilian authorities and population.

The Korean SOFA, originally signed in 1966 and revised once in 1991, therefore governs borderline cases and issues falling between the sovereignty of Korea, the host country, and the extraterritoriality of USFK, the visiting military force. Because of this very intricate nature of the accord, particularly from the view of Korea's general public, the format and the wording of the Korean SOFA have been criticized for their lack of clarity, and, it is said, for reflecting "less fairness" than the SOFA governing U.S. forces assigned to NATO in Europe.

Korean public reaction to the latest revision of the Korean SOFA has been mixed. Evaluations of the latest revision of the Korean SOFA vary, depending on individual judgments. Some greet it with satisfaction, while others remain less satisfied, saying that the revision still lacks the fairness commonly found in both the European NATO SOFA and the Japanese SOFA. Nevertheless, the authorities of both the U.S. and Korean sides should be congratulated for their successful agreement resolving most of the grievances filed by the Korean side.

A joint statement presented at a news conference to announce the successful negoti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indicated both governments agreed that this SOFA revision reflects the will of President Kim Dae Jung and President Clinton and the people of both nations to enhance U.S.-ROK security cooperation in a mature and balanced manner. It is my understanding that the new Korean SOFA satisfies the interests of both countries, particularly the wishes of Koreans

개정된 SOFA; 항구적인 동맹관계 위한 중요한 진전

김 유 남 박사
단국대학교 교수/ 전 한국정치학회 회장

한미 양국간에 체결된 주둔군 지위협정(SOFA)은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 구성원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을 정의하는 양국간의 행정협정이다. 이 협정은 주한미군 구성원들이 한국법이나 또는 관련 한국정부 당국들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즉, 한미 SOFA는 주한미군사와 한국 관련당국 및 한국 민간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문제들을 서술한 민사협정이다.

한미 SOFA는 최초 1966년에 조인되었으며 1991년 한차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렀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주권과 주최국및 주한미군의 치외법권 영역과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상호 관심사중 어느 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건들과 사안들을 통제한다. 특히 이러한 매우 복잡한 협정의 특성으로 인해 한미 SOFA상의 체제와 표현은 특히 한국 일반 대중의 시각에서 볼 때는 명확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NATO군의 일원으로서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 군대에 적용되는 SOFA보다 "공정성이 결여된다"는 평을 들어 왔다.

최근 개정된 한미 SOFA 내용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반응은 여러가지 형태로 표출되었다. 최근 개정된 한미 SOFA에 대한 평가는 각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개정된 내용에 대한 만족을 표시하며 환영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유럽의 NATO와 체결된 SOFA 내용과 미일간 체결된 SOFA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공정성이 한미 SOFA에는 아직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계속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 정부 당사자들은 개정된 SOFA가 한국측에 의해 제기되는 대부분의 불만사항들의 해소에 필요한 내용을 수용하여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축하해야 할 것이다.

한미 양국간 성공적인 협상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 석상에서 공동발표문을 통해 양국 정부는 본 SOFA 개정이 성숙하고 균형있는 방식으로 한미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미 합중국의 클린튼 대통령, 그리고 한미 양국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양국은 동의한다 고 하였다. 본인이 알기로는 새로운 한미 SOFA는 한미 양국의 상호 이익을 특히 형사 재판권, 환경, 노무문제, 검역규정, 시설및 구역, 민사처리 등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한국 국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in areas regarding criminal jurisdiction, environment, labor issues, quarantine regulations, facilities, and civil proceedings.

The updated Korean SOFA will help maintain a solid foundation for USFK and enhance building a sustainabl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I would underline here the phrase "sustainable alliance," which means a strong alliance maintained while adjusting itself to a changing environment and conditions. In other words, a firm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should be based on developmental conditions for functional cooperation as well as friendship.

The original Korean SOFA, which many Koreans viewed as an "unfair compact," had been a major source of an uneasy feeling towards the United States, i.e., "anti-Americanism," as compared with similar troop pacts the United States had signed with European NATO states.

Some argue that the new SOFA is worthless and nothing new, since it is not possible to enforce environmental laws if penalties cannot be assessed for violations. That may be true for the time being, but we must recognize that the two sides did agree to create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the framework of the revised SOFA to pave the way for legal punishments for environmental crimes committed by USFK personnel. A truth common to all phenomena is that laws, rules, regulations, norms and habits are not changed overnight, and it takes time to achieve perfection.

Koreans must accept the revised Korean SOFA as a workable legal accord for the time being, provided that the legal provisions will continue to be reviewed as the necessity arises for revisions. With the revised Korean SOFA, the United States and Korea should continue to think about and seek together areas in which to promote friendships and to enhance the alliance.

We must, however, maintain a clear distinction between specific issues on the SOFA agenda and the overarching purpose of the U.S.-Korean alliance and its friendship. A disagreement with parts of the Korean SOFA should not lead to confusion or doubts about the substance of the alliance built up over the past half century. Simply put, the fact that one may disagree with particular clauses in the Korean SOFA does not mean one must dislike Americans, or become a public proponent for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Korea. The common challenge that lies ahead for both the United States and Korea is to make the revised Korean SOFA a critical step toward a lasting alliance and friendship.

있다고 생각한다.

개정된 한미 SOFA는 주한미군의 확고한 기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간 "항구적인 동맹관계"를 증진 시킬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인은 여기에서 "항구적인 동맹관계"란 문구에 대하여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 문구는 변화하는 환경과 조건들에 적응해 나가는 한편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한미 양국간의 굳건한 동맹관계는 우호증진뿐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위한 미래 발전적인 상황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유럽의 NATO 국가들과 조인했던 유사한 군사 조약과 비교했을때, 많은 한국 국민들이 "불공정한 조약"으로 생각되었던 최초 한미 SOFA 조항들은 "반미 감정"과 같은 미국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야기 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어 왔었다.

일부 사람들은 환경위반에 대하여 처벌할 수 없다면 환경법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새로운 SOFA는 가치도 없으며 새로운 것도 없다고 혹평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 일런지는 모르나, 한미 양측은 개정된 SOFA 체제내에서 주한미군 요원들이 저지른 환경범죄에 대한 법적인 처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법규를 제정할 것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 모든 일들이 다 그러 하듯이, 법이나 규정, 규칙, 규범및 관습은 하룻밤 사이에 바뀔수 있는 것이 아니며 완전한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 국민들은 법적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게 될때 계속 검토및 보완된다는 조건하에 개정된 SOFA를 차후 발전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기준으로 당분간 수용해야할 것이다. 개정된 SOFA로 한미 양국은 우호증진과 동맹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분야들을 계속적으로 함께 생각하고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SOFA 의제상의 특정 사안과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와 우정이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의 사이에서 분명히 구분을 해 나가야 한다. 한미 SOFA의 부분적인 불일치와 이해의 상충으로 지나 반세기 세월동안 쌓아온 한미 동맹관계 본질 자체에 대한 혼동이나 의구심을 유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간단히 말해서 한미 SOFA의 특별한 조항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미국인을 혐오하는 의미로 와전되거나 한반도로 부터의 주한미군 철수가 국민적 여론화 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앞으로 한미 양국이 함께 추구해야할 공동의 과제는 개정된 한미 SOFA를 항구적인 동맹관계와 우호를 향한 중요한 진전으로 삼는 것이다.

Revised SOFA; An Overview

Robert T. Mounts
Spec Asst to Dep Cdr, USFK/US SOFA Secretary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spells out the rules the American forces operate under while living and performing their duties in Korea. It provides a stable basis for the continued stationing of US troops in Korea in support of our mutual security commitments.

Effective April 2, 2001, after five years of negotiations, several changes to the SOFA entered into force. The changes continue to blend ROK laws with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we are accustomed to in the U.S. These changes are positive, balanced and reflect a maturing alliance. An overview is presented here; the details will appear in later articles.

The issue of alleged criminal behavior among changes to the SOFA have garnered significant attention, although the vast majority of SOFA-status personnel respect Korean and U.S. laws. Korean media had reported an erroneous public perception that the SOFA was too lenient toward those accused of a crime and that it sheltered criminals from Korean laws.

In fact, Korean authorities have long had the primary right to exercise jurisdiction over SOFA personnel and have routinely investigated and prosecuted the very few serious crimes committed. Most cases reported as crimes actually involve traffic accidents and other minor offenses.

Under former provisions, the US retained physical custody of an accused until the trial hearings and all appeals had been concluded. Under the recent changes, Korean authorities may obtain much earlier custody of accused SOFA personnel. In serious cases, they may receive custody upon indictment. In some cases of murder or rape, they may retain custody if they arrest the accused in the act or in "hot pursuit." However, the rights of SOFA personnel will be fully protected.

Two other legal issues have been resolved. First, minor traffic offenses involving only property damage need not be reported as a crime if the driver is adequately covered by insurance or SOFA claims procedures. However, accidents involving personal injury or death, or in cases where the other party is still not satisfied and files a criminal complaint,

개정된 주둔군 지위협정: 개관

로버트 티. 마운츠
주한미군 국제관계 특별보좌관, SOFA 합중국 간사

주둔군 지위협정은 대한민국에 주둔하면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미군들의 활동을 규정하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한미 양국의 상호 안보 공약을 지원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에 필요한 안정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금년 4월 2일부로 5년간의 협상 끝에 합의하여 개정된 몇 가지 조항들이 발효되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항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률과 미합중국에서 적용되어온 미국인들의 권리와 책임들을 지속적으로 상호 조화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된 내용들은 긍정적이고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성숙된 동맹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다음은 개정된 사항들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며 세부내용은 차후 기사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형사재판권 문제: 대다수 SOFA 적용을 받는 구성요원들이 한미 양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있지만 SOFA 개정내용 가운데 범법행위의 문제는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한국의 언론들은 SOFA가 이들 SOFA 신분의 피의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며 또한 이는 한국 법률로부터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그릇된 대중적 인식을 보도해 왔다.

사실상, 대한민국 당국은 오래 전부터 SOFA 요원에 대한 재판 관할권의 일차적 권한을 행사해 왔으며 매우 극소수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일상적으로 조사권과 소추권을 행사해 왔다. 실제 범죄로서 보고된 대부분의 사건들은 교통사고나 기타 경범죄들이었다.

종전의 SOFA 규정하에서 미합중국은 재판심리와 모든 항소심이 종결될 때까지 피의자의 신체적 구금을 계속 행하였지만, 최근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대한민국 당국은 SOFA 신분 피의자의 구금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중대한 범죄의 경우 한측은 기소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다. 살인이나 강간같은 범죄의 경우 한측은 범행현장에서 또는 '긴급추적'으로 피의자를 체포하였다면 그들에 대한 계속적인 구금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SOFA 신분 인원들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될 것이다.

두 가지 다른 법률적 사안이 해결되었다. 첫째로, 단지 재산상의 피해를 포함하는 경미한 교통위반은 관련된 운전자가 보험에 의해 적절히 보상을 받게 되거나 또는 SOFA 청구권 절차에 따라 적절히 보상이 될 경우에는 범죄로서 보고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가 인명피해나 사망인 경우 또는 다른 일

are still subject to Korean criminal prosecution. This will give our drivers the same protections that Korean citizens covered by private insurance now enjoy.

Second, a civil process procedure similar to that used in Germany for private lawsuits involving US personnel has been adopted. A new procedure for serving court documents upon SOFA personnel will assure that private lawsuits may be more readily settled in Korean courts

Land use has become a significant issue because available land for military training and new facilities is extremely scarce. Under the new agreements, both governments have promised to do more to protect the areas that USFK genuinely needs from encroachment and development.

The U.S. also agreed to consult with the ROK government on new construction planned by USFK. The ROK central government will then inform local governments and bring their concerns to USFK for consultation and resolution.

The two governments also agreed to streamline the resolution of USFK labor disputes and to use the mediation services of the ROK Labor Relations Commission. Korean employees will not be terminated without just cause, but the US may make reductions due to resource constraints or mission changes.

A separate agreement protects over 14,000 existing Korean jobs at USFK. The agreement also allows SOFA-status family members to obtain work on the economy while keeping their SOFA visas. USFK family members with a valid job offer may obtain Korean government approval to accept the employment if they otherwise meet the requirements of Korean law for the particular job and pay taxes on the income received.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was also recognized jointly by the ROK and US governments. The U.S. government commits to implement the SOFA consistent with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confirms its policy to respect relevant ROK environmental laws. The ROK government agrees to implement its environmental laws with regard for health and safety of US personnel. We will also work closely together to resolve concerns about environmental incidents or mishaps.

Overall, the new changes are balanced and positive. The agreements ensure a strong security alliance based upon mutual respect and partnership.

방이 만족하지 않고 형사 고발한 경우에는 계속 한국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 이는 미국인 운전자들에게 한국 국민이 현재 누리고 있는 개인보험에 의한 보상과 같은 보호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둘째, 독일의 민사 소송에서 미군에게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민사 소송 송달절차가 채택되었다. SOFA 요원에게 법원의 문서 송달을 보장하는 이 새로운 절차는 보다 손쉽게 민사소송이 한국 법정에서 처리되게 할 것이다.

토지 사용: 토지사용 문제는 군사 훈련과 새로운 시설물 신축을 위한 가용한 토지가 극도로 부족하기 때문에 중대한 이슈로 부각되어 왔다. 새로운 협정하에서, 양국 정부는 주한미군이 실제로 필요한 구역이 불법침범과 도시발전으로부터 보호를 약속하였다.

미국은 또한 주한미군이 수립한 새로운 건설 계획을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할 것을 합의했다.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그럴 경우 지방정부에 이를 통보하고 해당 지방정부가 주한미군과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조치한다.

양국 정부는 또한 대한민국 노동 관계부서의 조정(調停)을 통해서 주한미군의 노무분쟁을 능률적으로 해결할 것에 합의하였다. 한국 고용인은 자원의 제약 또는 임무의 전환으로 인한 감축 이외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되지 않도록 합의하였다.

별도 협정을 통해 14,000명 이상의 현 주한미군 한국고용인들의 직책을 보호하고 있다. 이 협정은 또한 SOFA 신분의 가족들이 그들의 SOFA 비자를 계속 보유하면서 한국의 경제 기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합법적인 취업제의를 받은 주한미군 가족들은 그들의 수익에 따른 세금을 지불하고 어떤 특수한 직종에 따른 한국 법률의 요구에 저촉되지 않는 한, 한국 정부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게 된다.

환경보호의 중요성: 한미 양국정부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였다. 미국 정부는 환경 보호를 위한 SOFA 규정 이행에 노력하며 대한민국의 환경 관련법규 준수에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인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인들의 보건과 안전을 고려하여 관련 환경법령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였다. 우리는 또한 환경사고와 재난에 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긴밀히 노력해 나갈 것이다.

결국, 새로운 개정은 대체적으로 균형적이고 긍정적이며, 이를 통해 상호 존중과 동반자적 관계의 기초위에서 강력한 안보 동맹관계를 보장하고 있다.

A Historical Perspective

Donald Timm
International Affairs, SOFA Office

When scores of US military forces began pouring into Korea at the start of the Korean War, the ROK-US alliance agreed to the provisions contained in an American Embassy memorandum known as the Taejon Agreement.

Ratified on July 12, 1950, just 17 days into the war, the Taejon Agreement was an informal agreement defining basic rights, duties and jurisdictional limitations of US forces stationed in Korea.

While the informal Taejon Agreement met ROK-US needs under war conditions, both parties recognized the need for a formal agreement.

As a result, on May 24, 1952, the Agreement of Economic Coordination Between the Unified Command and the Republic of Korea was endorsed. As Clarence Meyer signed the agreement on behalf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it became known as the "Meyer Agreement."

The Meyer Agreement covered matters from privileges and immunities to facilities.

On July 27, 1953,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During this time, it was the common view of some that a peace agreement would be reached in fair time. Hence, efforts focused on the start of the prisoner and civilian exchange and the rebuilding of the country. There did not appear to be a need for any formal agreement involving the long-term stationing of US forces in Korea.

After years passed and the Armistice still had not produced peace, the ROK began urging the US to regulate the status of forces serving in Korea by negotiating a formal agreement. In 1966, a formal agreement known as the ROK-US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was signed.

The ROK-US SOFA was drawn from many sources, including the NATO SOFA, the SOFA between the US and the Government of Japan, and improvements based on experiences with those SOFAs and others throughout the world.

Fortunately, the US experience over the years with other SOFAs in a variety of other countries, many not having a Western cultural heritage, allowed both sides to reach an agreement. Although neither country was totally happy with the result, both were willing to live with it.

역사적인 관점; 개정SOFA

도날드 팀
국제 담당관, SOFA 사무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초기단계에, 많은 미합중국 군대들이 한국에 투입되기 시작할 무렵 한미 동맹국은 대전협정으로 불리는 미 대사관 각서에 명기된 조항들에 합의하였다.

1950년 7월 12일 전쟁발발 단 17일 만에 비준된 대전협정은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그리고 관할권에 관한 제한사항 등을 규정한 하나의 비공식 협정으로 남아 있었다.

비공식 협정인 대전협정이 비록 전시체제 하에서 한미 양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주는 협정서 였지만 양측은 공식적인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 결과로 1952년 5월 24일 '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간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크래런스 마이어가 유엔군사령부를 대표하여 이 협정문에 서명하였기 때문에 협정의 명칭은 "마이어" 협정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마이어 협정에서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들의 특별한 권리와 면책에서부터 시설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되었다.

한국전쟁 종료 직후 1953년 7월 27일 한반도내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한반도내 정전협정이 조인되었다. 이 기간중 평화협정이 적절한 시기에 체결될 것 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다. 따라서 당시 모든 노력들은 남북간 포로와 민간인의 상호교환과 국가 재건에 총 역량이 집중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미군의 한국내 장기 주둔을 포함하는 그 어떤 공식적인 협정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으며 또한 대두되지도 아니하였다.

수년이 경과하였지만 아직 정전협정을 통한 한반도내 평화는 정착되지 않게 되자 대한민국은 미국으로 하여금 정식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통해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공식화 할 것을 요구했으며, 1966년 현재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으로 알려진 공식적인 협정이 조인되기에 이르렀다.

한미간 체결된 주둔군 지위협정의 내용은 나토 SOFA와 미합중국과 일본정부간 체결된 SOFA 관련자료, 그리고 이들 SOFA및 전 세계 기타 SOFA 체결을 통해 얻은 경험 등, 수 많은 정보와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산물이다.

다행히 많은 서구적 문화유산을 가지지 못한 나라들 중 다양한 국가와 여러 형태의 SOFA를 취급한 다년간 많은 경험을 축적한 미국은 한미양국과 합의하에 주둔군 지위협정을 체결하였다. 비록 양측이 합의된 협정에 전적으로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합의한 협정사항을 준수하면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노력에 투입된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군에 의해 사용되는 시설 및 구역들, 미국인들의 출입국, 통관, 과세, 형사 재판권, 청구권 절차에 관한 양국의 책임

The ROK-US SOFA regulates all matters related to the presence of US armed forces involved in defending the ROK from external aggression. It sets forth each nation's responsibilities with respect to facilities and areas used by US forces, entry and exit of US personnel, customs, taxation, criminal jurisdiction, and claims procedures.

It also covers health and sanitation, use of utilities and USFK's employment of Korean citizens and applies to members of the armed forces, civilian employees, invited contractors, technical representatives and their dependents.

What is called the ROK-US SOFA is actually the SOFA itself, and some government-to-government agreements concluded at the same time implementing and explaining the basic SOFA. In 1991 adjustments were made to this group of agreements, and most recently the basic ROK-US SOFA itself was also revised on January 18, 2001.

The result of five years of negotiations between the allies was several changes that will further blend ROK laws with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US forces are accustomed to and address current ROK government concerns.

While each party could undoubtedly find specific provisions it would rather not have agreed to, all-in-all, the ROK-US SOFA is a valuable tool that captures the fundamental interests, values, and philosophies of a Western democracy on the one hand and a traditional Eastern culture on the other.

The ROK-US SOFA blends the legal relationships of host and guest, and of firm allies and partners, dedicated to a mutual goal of maintaining peace and freedom. Rest assured the SOFA remains a major tenet of the solid ROK-US alliance.

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건 및 위생, 시설의 사용과 주한미군내 한국고용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본 협정에 명시된 사항은 주한미군 구성원, 군무원, 초청 계약자, 기술고문들과 그들의 가족들 모두에게 적용된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이란 실질적으로 주둔군 협정문 자체와 동시에 기본 SOFA의 이행과 설명을 규정하는 양국 정부간 합의된 몇가지 사항들을 총칭한다. 1991년 이러한 조항들에 대해 조정이 있었으며 기본 한미 SOFA는 2001년 1월 18일부로 개정되었다.

한미 동맹국간에 5년간의 협상 결과로 한국 법률과 미 합중국내에서 미군들에 익숙한 권리와 책임 등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우려하면서 제기한 몇몇 조항의 개정을 가져왔다.

개정안은 형사 재판권과 환경, 교통위반, 노무, 민사소송과 토지사용에 이르고 있다. 개정된 협정은 2001년 4월 2일부로 발효되었으며 이는 성숙한 한미동맹을 반영하고 있다.

한미 양측에서는 확실히 개정에 합의하지 않는 편이 낳았을 것으로 생각하는 어떤 특정 조항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한미 SOFA는 근본적인 상호이익과 한편으로는 서구식 민주주의를,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동양의 문화를 수렴할 수 있는 소중한 수단이다.

한미 SOFA는 자유와 평화를 유지할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면서 주인과 손님의 법적인 관계와 굳건한 동맹과 동반자의 관계를 융화시켜준다. 이러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에 합의하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한 고리가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Where is your favorite place in Korea ? 한국에 근무하면서 가장 잘 가는 장소는 ?

Capt. Steven Wollman

The KATUSA snack bar because they have great Kimchi and Ramyon.

카투사 스넥바 이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항상 김치와 라면이 있기 때문이다.

PFC Bryan J. Kroll

Pusan because of it's beautiful beach and great shopping. It is a large city but not too crowded.

부산이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바다와 쇼핑하기 좋다. 또한 큰 도시인 것에 비하면 그리 혼잡한 도시는 아니다.

PFC Kim, Ji Hoon

I like Kyongju city because there is a lot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경주시가 제일 좋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다양한 수 많은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양식을 볼수 있다.

Planting Trees, Prosperity and Friendship for ROK-US

SGT Krishna M. Gamble
PAO, 34th Support Group

Hundreds of USFK and ROK service members donned a pair of gloves, grabbed a shovel from their military compounds and began the task of planting trees which symbolize the bond between two nations. Over 200 soldiers, sailors, airmen and marines from both USFK and the ROK forces planted more than 1000 trees on one of Korea's most sacred grounds, Independence Hall, on Arbor Day.

Headed by LTG Daniel Zanini, commander of Eighth United States Army and MG Ahn, Kwang Chan, deputy chief of staff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the teams of combined ROK and U.S. soldiers enjoyed fresh air while planting green trees at one of the most cherished memorial areas for Korean citizens. Park, Yu Chul, president of Independence Hall; Chairman Dho, Young Shim of Visit Korea Year 2001; and U.S.O. Director Elaine Losey, helped to officially kick off the event..

"Trees are the sign of a great nation, a prosperous nation, a nation that is at the forefront of economic, social and intellectual development," stated LTG Zanini. He went on to say " Together, we represent the people of the ROK and US and our great alliance, and we are planting trees that represent new hope and continued friendship."

Also in attendance was Wayne Chumley, president of Daimler-Chrysler Korea. He spoke of the significance of the planting event, saying "The US Business community is confident that through events such as today's, with the two militaries planting dreams together, we are investing in our future. We will continue our efforts to bring the two nations closer together as partners of the future."

Appropriately timed to match the heavy appetite of the participants, there was a variety of food served during lunch by Korean community. Enjoying the atmosphere and the event, USFK Marine Cpl. Josh Fisk said "It's of great importance to be out here and show our friendship with ROK soldiers."

식목은 양국의 번영과 우정의 징표

병장 크리슈나 갬블
34 지원단 공보실

한미 양국군 장병들은 양손에 장갑을 낀채 삽을 들고서 부대 근처의 교외에서 "양국의 우호를 상 징 " 하는나무들을 심기 시작하였다. 약 200여명의 한미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병들은 지난 4월 3일 식목일날, 한국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 중의 하나인 독립기념관에서 관련 민간단체와 함께 1000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다.

미8군 사령관인 다니엘 자니니 중장과 한미 연합군 사령부 부참모장인 안광찬 소장을 비롯하여, 식수 행사에 참가한 모든 한미 연합군 장병들은 한국 국민들에게는 기념이 되는 명소인 독립기념관에 나무들을 심으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들여 마셨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독립기념관 박유철 관장과 주한미군과의 협조로 야외 한미 식목행사로서는 처음인 이 행사를 계획한 2001년 한국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도영심 위원장 그리고 USO 이레인 로지 여사도 식수 행사에 참가하여 한미친선의 기념식수를 하였다.

"나무는 위대한 국가, 번영하는 국가의 상징물이다. 이러한 국가란 경제적, 사회적, 지적인 발전 측면에서 선두에 서 있는 국가를 일컫는 것이다." 고 자니니 중장이 말 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나무들은 모든 나라들에게 중요하다. 나무들은 국민들의 성공을 기념하는 기념비이다. 이제 한국과 미국의 국민들은 한국 영토에 희망과 우정을 심고 있는 것이다."

참가자들 중에는 웨인 첨리 다임러-크라이슬러 한국 지사장도 있었다. 그는 "미국 경제 단체는 양국군이 꿈을 함께 심는 오늘과 같은 행사를 통해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동반자로서 양국을 더욱 가까이 묶을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라며 식수 행사의 중요성을 덧붙였다.

참가자들의 허기를 알아 주는 듯, 한국 시민들은 점심 시간에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준비하였다. 이런 식목일 행사를 통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우정으로 심은 나무를 보면서 미 해병대 죠시 피스크 상병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한국 군인들과의 우정을 보여주는 것은 한미 친선관계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Major General Russel L. Honore, Cdr, 2ID, adds more soil topping to ensure his newly planted tree, just like US-ROK relations, will grow strong and healthy.

미 2사단장 Russel L. Honore 장군은 마치 한미 관계의 상징처럼 새로 식목한 나무들이 강하고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흙을 북돋우고 있다.

A Korean Marine (right) holds the trunk of a young tree while US Petty Officer Anthony T. St. Thomas (left) adds soil to complete job. What a team!

한국 해병대원이(오른쪽) 묘목을 고정시키면서 미 해군 상병 Anthony T. St. Thomas와(왼쪽) 함께 흙을 북돋우고 있다. 탁월한 팀웍의 상징!

Shovel to Shovel -- Brigadier General David P. Valcourt, Assistant Deputy Commander(M), 2ID and Paju City Mayor Song, Dal Yong, along with other military and civilian leaders join forces in a tree-planting ceremony to commemorate Korea Arbor Day

미 2사단 부사단장인 David P. Valcourt 장군과 송달용 파주시장 그리고 한미 장병들 뿐만 아니라 민.관 관계자 및 한미 친선단체들이 한국 식목일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식목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Educators' Round Table - Building Understanding

한국 학계와의 첫 만남과 이해증진

USFK PAO

주한미군사 공보실

During the past year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 has undertaken several initiatives to promote friendship and better communication with Korean citizens. Those efforts include activities such as increased participation by American forces in cultural exchanges, working with local farmers on agricultural projects, significant disaster relief assistance, English language tutoring,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s.

"Educators Round Tables" with prominent Korean leaders in the academic community is another example of the efforts USFK is making to promote greater understanding and enhance Korean and USFK relations. The first "Educators Round Table" was held on February 23rd. Scholars from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the Sejong Institute attended, along with professors from Dan Kook University, Duk Sung Women's University,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and Han 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se prominent professors gathered to learn more about the combined defense team, and to help USFK leaders better understand the changes occurring in Korea and how those changes are impacting the opinions of Korean citizens.

The Korean scholars enjoyed an atmosphere of free flowing discussion and friendliness, noting that it was a meaningful gesture of reaching out and real openness with the Korean people. The scholars were given the opportunity to ask questions and exchange viewpoints with Mr. Evans Revere, Charge d' Affairs, U.S. Embassy; Lt. Gen. Charles Helflebower, USFK Deputy Commander and Commander of 7th Air Force; Lt. Gen. Daniel Zanini, USFK Chief of Staff and Commander of Eighth U.S. Army, and Maj. Gen. Ahn, Kwang Chan, Deputy Chief of Staff of Combined Forces Command.

The feedback from all of the Korean participants indicated the Round Tables are very beneficial and should continue to take place.

작년부터 주한 미군사령부는 한국 국민들과의 우호를 증진시키고 원활한 의사교류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중의 하나로 주한미군 장병들로 하여금 각종 문화교류, 지역 농민들에 대한 영농지원, 심각한 재난지역 복구지원활동, 영어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 환경개선 활동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한국학계의 저명한 지도자들을 모시고 자리를 같이한 "학계와의 만남"도 이러한 노력중의 하나로 주한미군사는 한미간의 이해관계를 돈독히 하고 한국사회와 주한미군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 첫 번째 학계 지도자들과의 모임이 지난 2월 23일 주한 미군사내 하텔 하우스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정치학회, 국제정치학회, 세종 연구소 대표자들과 단국대학교, 숙명여자 대학교, 덕성여자 대학교 및 한국 외국어 대학교 등에서 참석한 저명한 교수들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다. 참석한 한국 학계 지도자들은 한미연합 방위팀에 대해 많은 내용을 이해할 기회를 가지면서 주한미군 지도자들에게는 한국내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그러한 변화의 바람들이 어떻게 한국 국민들의 여론에 미칠 것인가 등을 일깨워 주었다.

한국학자들은 자유스럽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진행된 질의 및 토론에 만족해 하면서, 주한미군으로부터 처음으로 공식 초청을 받은 사실에 의미를 두고 손을 뻗쳐 한국인들에게 실질적인 개방을 표시하는 의미 있는 제스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학계 대표자들은 주한미군 대사대리인 Mr. Evans Revere, 주한미군사 부사령관겸 미 제7공군 사령관인 Charles Heflebower 중장, 주한 미군사 참모장겸 미8군 사령관인 Daniel Zanini 중장, 그리고 연합사 부참모장인 안광찬 장군과 질의응답을 통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한미간 만남의 자리를 갖는 것이 양국에 유익하며 앞으로 계속 모임을 갖자고 하였으며 주한미군사 지도자들도 이러한 토의와 모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계속 정기적인 모임을 계획하고 있다.

New and Former Female Cadets Share Common Challenges

USFK PAO

Determination and belief in one's self are essential to success in a military career traditionally dominated by men.

This was the message delivered to a group of female cadets from the Korean Military Academy (KMA) by American female officers who started their military careers as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The officers are members of the Eighth U.S Army, headquartered in Yongsan.

Col. Anne MacDonald, one of the first female graduates of the U.S. Military Academy at West Point, led the informal discussions.

"The symposium provided me with a splendid opportunity to share my experiences as a female cadet at the U.S Military Academy and as a female Army officer," said Captain Maria Burger. "I can relate to the unique challenges faced by these bright and enthusiastic cadets. I must say the cadets listened attentively and asked the right questions to gain the proper insight on how to succeed in a profession that is predominately male. This was an experience of a lifetime for me and I hope that sharing my experiences will help these outstanding scholar cadets succeed as future officers," said Burger.

Asked about the challenge of being an officer and a mother, Major Maria Eoff said, "The female soldier's ability to balance the two roles will determine her success in the military. However, there is no reason why you cannot be a good mother, as well as a good officer. It all comes down to prior planning as an officer and a mother, support from your husband and family, and balancing these two important aspects of your life." said Eoff.

The Korean cadets realized they have a lot in common with their American counterparts.

한국 여생도들, 미 여군장교들과 진지한 토의

주한미군사 공보실

전통적으로 남성위주의 군 생활에서 성공적인 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결단력과 신념이 가장 필요한 수적인 요소다.

이것은 미군 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 생활을 마치고 군 생활을 시작한 미 여군장교들과의 모임에서 미군 여군장교들이 참석한 한국군 여성 사관생도들에게 들려준 교훈이었다. 이번 모임은 용산에 근무하는 미 8군 여군장교들로서 한미간의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자리였다

미 육군 웨스트 포인트 출신 중 첫 여성 사관생도인 Anne MacDonald 대령은 한미 선후배 여군생도들이 자유로운 토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회를 보았다.

"이 번 심포지엄을 통해 나는 미 육군사관학교 여생도 시절과 여군 현역장교 근무기간 동안의 군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을 한국군 여생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가졌다." 고 미 8군 작전처에 근무하고 있는 마리아 버거 대위는 말한다. "나 는 여기에 참석한 총명하고 열성적인 한국 여생도들이 경험하게 될 우리 여군들만의 문제들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생도들은 우리가 말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주의깊게 청취하고 남성 위주의 직업분야에서 성공적인 길을 갈 수 있는 현명한 통찰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많은 질문을 하라고 권하고 싶다. 이것은 나에게는 일생을 통해 얻은 경험이었으며 나의 경험을 교훈 삼아 여기 있는 여군 생도들이 장차 훌륭한 장교가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버거 대위는 끝을 맺었다.

장교로서의 역할과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역할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라는 질문을 받고서 마리아 이오프 소령은 "어머니와 여군 장교로서의 두 가지 역할을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여군장교의 능력은 바로 군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결정적 요소다. 그러나 훌륭한 장교 못지 않게 훌륭한 어머니가 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장교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사전에 잘 생각하고 남편의 도움과 함께 이러한 두가지 중요한 측면을 잘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고 이로프 소령은 말한다.

한국 여생도들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미국 여군장교들과 많은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Korea - Unique Opportunity and Hardship

MSgt Carlton Hill
USFK PAO

Serving in Korea offers US service members an ideal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majestic beauty, rich culture, friendly people and terrific shopping of Korea. Breath-taking views of Sul Chok Sun, lush green landscapes of Cheju Do Island, daily living among warm Korean communities, and mega market complexes of Tongdaemun and Namdaemun all offer American service members here a real challenge in savoring the full taste of Korea's splendor and grace.

A bit of a different challenge USFK members also face is combating the many hardships that sometimes come with working abroad. While America's military serves voluntarily, coping with the daily, difficult sacrifices that sometimes come with working overseas unfortunately, is not an option.

These adversities, common to many USFK members, can drastically alter lifestyles, significantly strain family relationships, and adversely impact morale–a real key to readiness.

For one soldier stationed near the DMZ, meeting the intense demands of serving at a division level without the accustomed support and privileges available in the US and other places remains an uphill battle.

"Because of the high expectations you have of yourself and the job you do in this tough environment of multiple missions, separation from family and friends as support becomes the main source of stress," said Spc. Charles Schartung, 2d Infantry Division Public Affairs Office. Because many USFK members are located squarely in a declared imminent threat area, most members must serve their tour here apart from their families.

Some soldiers serving in Korea incur a loss in pay with no tax relief enjoyed by US military members in other overseas imminent threat areas such as Bosnia, Southwest Asia and others.

Many USFK members also take on additional costs associated with maintaining two households such as appliances, telephone service, transportation, travel expenses for mid-tour leave, a computer, TV and entertainment costs to name a few.

Soldier living conditions pose yet another difficulty to endure. Currently, some soldiers are assigned three to a room. This pales in comparison to the US Army standard of one person per room, which is the norm in other areas.

And when it comes to family housing, USFK realizes a much

한국근무는 힘들지만 유익한 기회를 제공

칼튼 힐 상사
주한미군사 공보실

한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미군 장병들은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풍부한 문화, 친절한 사람들과 그리고 즐거운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된다. 설척선의 아슬 아슬한 절경과 제주도의 푸르게 우거진 정경,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국 사회에서의 하루하루 새로운 배움의 생활, 동대문과 남대문의 전형적인 한국의 대형 시장 등, 이 모두가 한국근무를 통해 이곳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매력을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북돋워 주고 있다.

한국근무가 이러한 유익한 기회를 주는 것과는 달리 주한미군들이 직면한 어려움중의 하나가 바로 해외 근무로 인한 여러가지 과제들을 극복하는 일이다. 군에 자원 입대하여 직업군인으로서 생활하는 미군들에게는 불행히도 해외 근무로 인하여 매일 겪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주한미군 요원들이 통상 겪는 이런 어려움들은 그들의 생활방식마저도 많이 바꾸어 놓기도 하며, 가족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면서 군의 준비태세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군의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비무장 지대 부근에 근무하는 한 병사의 경우, 미국 본토에서나 기타 지역에서 당연한 혜택이 주어지는 각종 지원 및 특혜를 받지 못하고 사단급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요구되는 각종 격무를 감당해 내기에는 무척 힘든 군 복무를 하고 있다.

"자 기 자신에 대한 너무 높은 기대치와 다양한 임무가 요구되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친근한 가족이나 친지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것은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라고 미 2사단 공보실에 근무하는 찰스 츄알퉁 상병은 말한다.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많은 수의 장병들은 전방 위험지역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한미군 장병들은 가족들과 떨어져 한국에서 근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은 보스니아, 서남 아시아 및 기타 관련 위험지역에 근무하는 해외 미군들이 혜택받는 세금공제를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봉급이 감소되기도 한다.

많은 주한미군들의 경우 가전제품, 전화서비스, 교통비, 여행/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컴퓨터, TV와 연회비등 가족과 떨어져 생활함으로써 발생되는 2가구 유지 추가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장병들의 생활환경 또한 견디기 어려운 것 중의 하나다. 현재, 어떤 병사들은 1방에서 3사람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열악한 상황은 1인 2실의 미군 기준에 비해 많은 것으로 다른 국가에 근무하는 병사들도 대부분 1인 2실의 방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대조된다..

가족 주택의 경우 일본 또는 유럽에 주군하는 미군들과 비교할

greater shortage than US forces in Japan and Europe. In fact, family housing is the most serious quality of life issue facing the USFK command. It contributes to high personnel turbulence and discontinuity, degrades morale and productivity, resulting in high assignment declinations and retention problems for our services.

Of the 37,000 USFK troops, 19,950 are married, yet government-owned or leased family housing is available for only 1,987. This equates to less than 10 percent compared to 70 percent of married, accompanied service members housed in Europe and Japan.

However, help is on the way. A USFK goal to increase the command-sponsored rate for Korea includes new construction and leasing of local housing units. The aim is to build 4,200 of the 6,300 units needed over the next twenty years. In fact, this year's housing project includes 60 new units at Camp Humphrey's.

While Korea's uniqueness as a yearlong unaccompanied tour is purchased at a price, USFK members possess a myriad of opportunities to experience an exotic land, intriguing culture, and neighborly people. While serving in Korea comes with some challenges, many service members find a tour in the enchanted Land of the Morning Calm a unique and memorable experience.

For Staff Sgt. Michael Porter, also a soldier with the 2d Infantry Division, Camp Red Cloud, serving in Korea certainly has its appeals. "A surprising number of soldiers extend their service past the one-year mark. And while the mission is demanding, the area is beautiful and the people are accommodating," Porter said.

때 가구 당 주거인 수를 비교해 보면 몹시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상 삶의 질 문제에 있어서 가족 주거환경은 주한미군사령부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사안중의 하나로 가장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개인에 있어서 혼란과 업무의 불연속성, 사기 및 효율적인 활동력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임무 수행력에 문제가 생겨 부대근무에 계속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37,000명의 주한미군 중에서 19,950 명은 기혼자들 임에도 불구하고 관사 또는 임대 가족주택의 부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1,987명에게만 사용 혜택이 돌아간다. 이것은 일본 및 유럽의 기혼자들 중 가족동반 인원에 대한 주택 보급률이 70퍼센트인 것에의 비교하면 이곳 상황은 1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사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가족을 동반하는 한국근무 장병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사는 새로 주택을 건설하여 보급율을 높이고 영외 임대주택 지원을 증가시킬 예정이다. 당면 목표는 20여년에 걸쳐 필요한 6,300가구의 주택소요중 4,200가구를 건설하는 것이다. 실제 올해의 주택건설 사업중에는 캠프 험프리스에 60가구의 새로운 숙소를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비록 1년 근무로 가족을 동반하지 못하는 한국근무의 특수성 때문에 값진 군 복무를 하지만, 주한미군 장병들은 해외에서 새로운 문화및 친절한 한국인들과 접하면서 많은 경험을 접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의 근무는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지만 고요한 아침의 나라인 한국에서 새롭고 기억에 남을 귀중한 경험이 되는 근무가 될 것이다.

미 제 2사단 캠프 레드 클라우드의 병사인 마이클 포터 중사에게 한국은 분명 매력 포인트가 있는 나라이다. "놀라울 정도로 많은 병사들이 1년 근무를 연장하기도 한다. 한국 근무가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 한국은 역시 아름답고 친절한 국민들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있다." 라고 포터 상병은 말한다.

What have you volunteered for while in Korea or back home?

한국에 있을 때나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SGT Delwin Hoyle

I played Santa Clause at the orphanage by Camp Greaves during the holidays.

연휴동안 캠프 그리브스 근처에 있는 고아원에서 산타 할아버지 역할을 맡았습니다.

PVT Matthews Shorthouse

I taught English at a local high school, as did many of the officers and soldiers here.

대부분의 장병들이 하듯이, 인근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SSG Mark Crane

I helped prepare kimchi during the cookout for "My Home Orphanage."

고아원 요리대회를 준비할 때 김치 만드는 것을 도왔습니다.

1LT Alexander Vindman

I was a Big Brother at the Boys and Girls Club for almost a year back home.

미국에서 1년 동안 소년 소녀 클럽에서 큰 형으로 일하였습니다.

Military Service in Korea - A Family Tradition

Sara, Kirk
USFK Public Affairs

There was neither doubt nor hesitation when Col. Reamer W. Argo III (Pictured in the center) received his orders to report for duty in the Operations Division of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As a matter of fact, Argo, felt very comfortable about his pending assignment. He has, after all, heard plenty of stories about Korea from his father, grandfather and brothers.

Argo comes from a military family. In addition to military service, service in Korea, has also become a tradition in the Argo Family.

Grandfather, Reamer W. Argo Sr., first came to Korea as the head of the 24th Security Unit in September 1945. He disarmed Japanese police and soldiers and took over public security responsibility. His family is recorded as the first American family from the U.S. forces to live in Korea.

His father, Reamer W. Argo Jr., fought in the Korean War as an artillery captain and was wounded near Pyongyang in December 1950. Argo's oldest brother is a lieutenant colonel in the specialized "Rangers" and has served in the 2nd Infantry Division of the USFK. His youngest brother from the Navy Seals served with Headquarters United States Naval Forces Korea from 1991 to 1992.

He has high regard for his Korean colleagues and does not spare to extol the Korean character. "Koreans are extremely kind. I hope I can take such aspects back to the U.S.," said Argo.

5대째 한국에 근무한 한 미군가족 전통

사라 커크
주한미군사 공보실

Reamer W. Argo III 대령이 주한미군사령부내 작전분야로 근무 명을 받았을 때 그는 의아해하거나 주저하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 아고 대령은 차기 근무지에 대해 오히려 기쁨 마음과 편안함을 느꼈다. 그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형제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어 왔기 때문이었다.

아고 대령은 군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전통적인 군인가족 이라는 가문 이외에 대대로 한국에서 근무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국통 집안 이었다.

할아버지인 Reamer W. Argo Sr 씨는 1945년 9월 미 제 24 경비대장으로 한국에 처음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해방과 동시에 한국내 있는 일본 경찰과 군을 무장 해제시키고 민정 경비책임자의 임무를 맡았다. 그의 가족은 한국에 거주했던 미군의 군인가족들 중 제일 처음 한국에 발을 디딘 미군가족으로 기록에 남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 Reamer W. Argo Jr 씨는 포병 대위로 한국전쟁에 참전했으며 1950년 12월 평양근교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다. 아고대령의 큰형은 현재 특수 유격대의 중령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사 예하 미 제2사단에 근무한 적이 있었다. 해군 특수부대 (Navy Seal) 출신인 그의 막내 동생은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주한 미해군에 근무하였다.

아고 대령은 한국인 친구 및 동료들에 대해 매우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인들의 품성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한국인들은 매우 친절하다. 나는 미국으로 갈 적에는 그러한 좋은 점을 가지고 가고 싶다" 고 아고 대령은 말한다.

Reunion of Korean Woman and US Rescue Team

Nel Catalina S. de Leon
USFK PAO

Yu Shin-Ja and her family will never forget the day her second child was born. She will remember the rush and panic to bring her to the nearest hospital, and also the ROK and U.S. servicemembers who performed a daring rescue mission to save her life and that of her then unborn child.

Yu, a 33-year old in Bek Ryung Island, was diagnosed with a potentially life-threatening complication and was in need of an emergency caesarian operation. Until Yu could be airlifted to a major hospital in Inchon, she and her baby were in great peril.

The 6th Brigade, ROK Marines, assigned to the island requested the ROK Air Force to send a helicopter, which was dispatched, but forced to return due to foggy weather. The ROK Joint Chiefs of Staff then requested U.S. airlift assistance and immediately, a U.S. Air Force HH-60G Pave Hawk helicopter with a doctor flew from Osan Air Base to the island.

Although the helicopter crew faced weather conditions that reduced visibility to less than one mile in the vicinity of Bek Ryung Island, the Pave Hawk is equipped with sophisticated night vision and navigational capabilities. Additonally, the crew trains routinely in bad weather and low visibility operations, and was well prepared for the mission.

The success of this rescue mission is the result of teamwork. Yu and her baby were saved because of the cooperation and combined efforts between U.S. and ROK forces and the support of the civilian community. In a special ceremony, the ROK Marine Commandant, Lt. Gen. Kim Myung-Hwan, presented letters of appreciation to the U.S. flight crew for their part in the rescue operation.

A few days later, the U.S. flight crew that brought Yu to Inchon visited her at the hospital. It was a joyful reunion for Yu and the crew. Overwhelmed by a shower of flowers and gifts, Yu and her husband, Kim Jung-Wook, thanked each and every one for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ir lives.

To Yu, the birth of her second child will be a most memorable experience. And every year her daughter celebrates a birthday, Yu will always remember those who helped to bring her beautiful child into this world.

한국인 산모와 미군구조단 뜻깊은 재회

넬 데 레옹
주한미군사 공보실

유신자씨와 그녀의 가족은 둘째 아기가 태어나던 날을 잊지 못한다. 그녀는 인근 병원에 후송될 때까지 있었던 혼란과 긴박한 상황을 기억에 떠올리며 무엇보다도 유신자씨는 그녀 생명과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그녀의 아기를 구출하기 위해 위험한 구출작전을 펼쳤던 한국군 및 미군 장병들을 잊지 못할 것이다.

백령도에 거주하고 있는 33살의 유신자씨는 잠재적으로 생명의 화급을 다투는 후유증세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녀가 헬기로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에 헬기로 후송되기 전까지 그녀와 태어날 그녀 아기는 생명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다.

현지의 한국군 해병대 6여단은 공군 헬리콥터 지원요청을 하였으나 안개로 인해 헬기는 되돌아 가야만 했다. 이에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주한미군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미 공군은 즉각 군의관을 동행한 HH-60G 페이브 혹 헬기를 오산 기지에서 이륙시켰다.

비록 헬기 승무원들은 백령도 부근의 시계 1마일 이하라는 악천후에 처해 있었지만 페이브 헬기는 최첨단 야간 투시경과 항법장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승무원 또한 악천후와 시계 불량에 임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평시 훈련을 통해 이러한 구조임무에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번 구출작전의 성공은 팀웍의 결과라고 할 수 있었다. 유신자씨와 그녀의 아기는 한국군 및 미군간의 공동노력과 아울러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로 구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 해병대 사령관 김명환 중장은 구조작전에 참가한 미군 헬기 조종사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며일 후 미군 구조대는 유신자씨가 입원해 있는 인천 길병원을 방문하였다. 그것은 조종사들과 유신자씨에게는 뜻 있는 만남이였다. 미군 장병들이 증정한 꽃다발과 아기를 위한 선물에 감격한 유씨와 그녀의 남편 김정욱씨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구출단원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다.

유신자씨에게 그녀의 둘째 아기 탄생은 매우 감명 깊은 경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매년 그녀의 딸이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유씨는 그녀의 딸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이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Exploring Korean Culture thru Beauty of Hanbok

한복의 아름다움과 한국문화 체험

Sgt. Kwon Soon- Wook
Area II Public Affairs

A series of admiration and smiles came one after another from the US audience and Korean organizers at a fashion show where Korean traditional clothing, Hanbok, was presented to US servicemen and their families. They were fascinated with the beautiful and flowing clothing, which provided them an opportunity to learn and and experience the beauty of Korean culture.

The show was organized by professor Shim Hwa-jin,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who focused on historical recreations of palace costumes from the Three-Kingdom era to the Chosun dynasty, as well as various Hanbok worn by different age groups.

The show also provided US family members an opportunity to act as a model under the close guidance of the professor. "I felt honored, as an American, to wear such a beautiful article of clothing," said Ms. Robin Sampson-Worth. "The language barrier was broken by smiles, which are universal."

Sgt. First Class Tara Winn and her daughter Gabrielle, age 5, were also models. "My daughter said she felt like a princess wearing such beautiful clothing," remarked Winn. "It was an educational experience that I will not forget."

The show is designed to provide insight into a variety of Korean traditional dress and related subjects to include patchwork and dyeing procedures. " I was apprehensive about attending the show; I thought it would be boring," said 1st Lt. Alicia Booker. "However, after just a few minutes, the exceptional design and vibrant colors were so intriguing, it held my attention and kept me on the edge of my seat."

병장 권순옥
Area II 공보실

한국의 전통적인 의상인 한복이 주한미군 장병 및 그 가족들에게 우아한 자태로 선을 보였을때 패션쇼 행사에 참석한 미국인 관중들과 한국 관계자들은 감탄과 웃음을 연발하였다. 참석자들은 전통적인 한복 의상이 지니고 있는 아름답고 우아한 의상의 맵시에 매혹되었다. 패션쇼가 진행되는 동안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한국 문화의 아름다음을 배우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었다.

패션쇼는 성신여자대학교 의상학과 심화진 교수에 의해 마련되었다. 심 교수는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의 각종 궁중 의상에 대한 역사적인 재조명과 아울러 특히 각 연령층이 입었던 다양한 한복들을 선 보였다.

또한 심 교수의 세심한 지도 아래, 미국 군인 가족들에게는 패션쇼의 모델로서 관중앞에 설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었다. "미국인으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품인 한복을 입어보는 것은 영광이었습니다. 이 패션쇼에서 언어 장벽은 전 세계 공통 언어인 웃음으로 극복되었습니다." 라고 로빈 샘선워스양이 말했다.

테라 윈 상사와 그녀의 5살 딸인 개브리엘 또한 모델이 된 본 영광을 안았다. "딸은 너무도 아름다운 의상을 입고 마치 공주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고 나에게 말을 하였다. 그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좋은 교육 경험이었습니다"라고 윈 상사가 언급하였다.

패션쇼는 한국의 다양한 전통 의상과 그와 관련된 부문, 예를 들면 미봉과 염색 과정 같은 내용에 대한 식견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처음에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패션쇼가 지루할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앨리시아 부커 중위가 말하였다. "그러나 얼마후 뛰어난 디자인과 현란한 색상들은 나의 흥미를 자아냈고 관심을 끌면서 자리를 뜨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A Reason US Vet Visits Korea

뜻있는 미국 재향군인의 한국방문

SGT Chung, Young Seok
Seoul Word

Once veterans of the U.S. 5th Regimental Combat Team visit Korea, they are glad to see and get together with boys in Korea, who remind them of the old days back in the Korea War.

Curly B. Knepp, local representative for the 5th Regimental Combat Team (RCT), conducts an annual tour of the Sam Dong Boys Town to maintain the memorable relations with the community on behalf of the veterans. He has presented $1,650 to a director of the organization since 1970, and did so again in January this year also. Donations help maintain the facility and finance training programs for the orphans.

Originally called Korean Boys Town, Sam Dong was founded in 1953 by members of the U.S. Army Infantry 5th RCT on Nanjido Island, along the Han River near Seoul.

Toward the end of the Korean War, orphans began filling the camp occupied by the 5th RCT. Moved by their plight, the 5th RCT, along with the 72nd Combat Engineers, decided to build units to house the children. They built three school buildings and 12 homes to accommodate more than 300 orphans.

"Soldiers also contributed funds to support the orphanage," said Curley B. Knepp, Air Force Audit Agency, Osan Air Base and member of the 5th RCT. Several donation stands for organizations such as the American Red Cross were lined up on paydays. One of them was for the Korean Boys Town.

When the Korean War ended in 1954 and the 5th RCT returned to Hawaii where the unit was originally located, the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assumed management of the orphanage.

The relationship between Boys Town and the 5th RCT was rekindled when Lee, Jac-Won, an interpreter for the 5th RCT during the Korean War, visited Sam Dong Boys Town during a trip to Korea five years ago. Once it was known that the orphanage was still in existence, members of the 5th RCT decided to present annual donations to the orphanage. The founding veterans spread the word through their unit association letter and since then, donations have been pouring in.

병장 정연석
서울워드

미 제 5연대 전투단 재향군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그들은 한국전쟁 당시를 회상하며 한국인 소년들과 자리를 같이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미 제 5연대 전투단의 한국지역 대표자인 Mr. Knepp은 그 부대출신의 재향군인들을 대표하여 소년원과 깊은 인연을 유지하기 위해 해마다 "삼동 소년의 집"을 방문한다. 그는 1970년 이후로 소년의 집 원장에게 미화 $1,650을 기부해 왔으며, 올해 1월 달에도 어김없이 방문하였다. 이 기부금은 고아들을 위한 시설 유지와 교육지원에 쓰인다.

최초 "한국 소년의 집"으로 명칭 되었다가 "삼동 소년의 집"으로 개칭된 이곳은 1953년 미육군 5보병 연대 전투단에 의해 서울 한강변에 있는 난지도 지역에 세워졌다.

한국전이 끝날 무렵 미 제 5연대 전투단에는 고아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결하기 위해 미 제 5 연대 전투단과 미 제 72 전투 공병단은 아이들을 수용할 집을 짓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300명 이상의 고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3개의 학교와 12개의 숙소를 지었다.

"병사들 또한 고아원을 후원할 기금을 헌납하였습니다"고 오산 공군기지 회계 감사원이자 미 제 5연대 전투단 일원인 Curley B. Knepp씨는 말한다. 미 적십자와 같은 후원단체와 각종 기부단체들이 봉급날에 줄을 섰으며 그들 중 하나는 한국 소년의 집으로 보내 지곤 하였다.

1954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5 보병 연대전투단이 원래 부대가 위치했던 하와이로 돌아갔을 때, 한국 기독교 청소년 회관 (YMCA)이 그 고아원을 관리하게 되었다.

소년의 집과 미 5보병 연대전투단과의 인연은 한국전 당시 5보병연대의 통역원 이었던 이작원씨가 5년전 한국방문중 삼동 소년의 집을 방문함으로써 다시 시작되었다. 과거에 인연을 맺은 고아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미 5보병연대 요원들은 그 고아원에 매년 일정 기부금을 전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부대 창설회원들이 부대 모임 단체에 편지를 보내 이 사실을 전파한 이후 기부금들이 쏟아져 들어 오기 시작하였다

Members of the US 33rd Rescue Squadron pose with Yu Shin Ja and her family after the medical evacuation mission. A daring rescue mission in foggy weather saved her life and a new born baby.
(Right is the new born baby) – Story on page 17

짙은 안개속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인 산모를 긴급 후송한 미 제 33 구조대원들이 병원을 방문해 순산한 유신자씨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이와 함께 즐거워 하고 있다.
(오른쪽은 새로 태어난 아기) – 관련기사 17면 –

Katchi Kapshida is an authorized publication under the provision of Army Regulation 360-1. It is published to inform Korean community leaders, educators and concerned organizations about U.S. military activities and policies. The contents of Katchi Kapshida are not necessarily official views of, or endorsed by the U.S.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se, or United States Forces Korea. It is published by the Community Relations Division, United States Forces Korea Public Affairs Office. (Yongsan 723-4687)
Katchi Kapshida is on the web at http://www.korea.army.mil/pao/cr/katchikapshida.htm
Views and commentaries regarding stories printed in the Katchi Kapshida are welcome. Send viewpoints, submissions, or editorial comments to hansc@usfk.korea.army.mil
" 같 이 갑 시 다 " 주한미군 소식지는 미 육군 규정 360-1 근거에 의해 허가 된 발행물임. 본 지의 발행 목적은 한국사회 지도자들, 학계 그리고 관련 기관,단체들에게 주한미군의 활동과 정책들을 알리는데 있음. 본지에 게재되는 내용들은 반드시 미국 정부, 국방성 또는 주한미군의 공식적인 견해나 일반적인 관점 또는 승인된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님.
발행물 담당: 주한미군사 공보실 섭외처 (전화: 7913-4687)
인터넷 주소 : http://www.korea.army.mil/pao/cr/katchikapshida.htm
의견이나 편집상의 조언을 보낼 e-mail 주소 : hansc@usfk.korea.army.mil

U.S. Forces Korea Public Affairs Officer
COL Samuel T. Taylor, III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r
LTC Thomas E. Nickerson

Advisor to Editor: Mr. George D. Kim
Editor: Mr. Han, Sung Chong

Assistants: Ms. Sara L. Kirk
Ms. Catalina S. De Leon
SGT Lee, Taek-Jin

Copy Editors: MAJ Robert J. Gonzales
MSG Thomas E. Cuddy
Ms. Ha, Haeng Cha

Special Assistants: SGT Choi, Joon Yung